

| 예 배 | 일 시 | 장 소 |
|--------|--------------|--------|
| 주일예배 | 주일 오후 1시 50분 | 예배당 |
| 어린이 예배 | 주일 오후 1시 50분 | 교육관 |
| 청년 모임 | 주일 오후 3시 30분 | 교육관 |
| 금요 기도회 | 금요일 오후 7시 | 음대 강의실 |
| 한민 말씀방 | 매일 | 단체 카톡방 |

주일 예배 봉사위원

| | 02. 15 | 02. 22 | 03. 01 |
|---------|--------|--------|--------|
| 대 표 기 도 | 정환영 형제 | 이상호 목사 | 이상호 목사 |
| 성 경 봉 득 | 정환영 형제 | 최상우 형제 | 김정규 형제 |

교회소식

2월의 축복 인사 : 하나님 안에서 함께 순종합시다

1.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온라인 헌금 안내 – 십일조(Zehnte) 감사(Dank) 선교(Mission) 구제(Erlösung)
주일헌금(Kollekte)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용도)
3. 졸업연주 – 장래황 형제 – 9일(월) 저녁 7시30분, Glocke
4. 부고 – 효섭 Steinbauer 성도 모친상(모든 일정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5. 예배 후 친교실에서 모입니다.

교우동정

| 생일 | |
|----|--|
| | |

지난주통계

| | |
|----------|--|
| 주일헌금 | |
| 감사헌금 | |
| | |
| | |
| 합계(Euro) | |
| 온라인헌금 추가 | |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일어나서 함께 가자(아2:10)”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신 기 훈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7, 29,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온라인 헌금 안내

예금주 : Jin Soon Chung
IBAN : DE26 2905 0101 0012 0638 48
BIC : SBRED 22XXX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홈페이지 : 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 | | |
|------------------------------|-------------------------------------|---------------|
| *찬양 Gemeindelied | ----- | Liebevoll 찬양팀 |
| *송영 Chor | ----- | 반주자 |
| *기원 Altargebet | ----- | 이상호 목사 |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 사도신경 | 다같이 |
| 찬송 Gemeindelied | 279장 | 다같이 |
| 기도 Gebet | ----- | 최종열 성도 |
| 성경봉독 Predigttext | 암 4:12-13(구p1278) (Amos 4:12~13) | 최종열 성도 |
| 특별찬송 Sonderlied | | 김정규 형제 |
| 교회사식 Information & Begrüßung | 새 가족 환영 | 이상호 목사 |
| 헌금기도 Kollektgebet | ----- | 이상호 목사 |
| 설교 Predigt |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 | 이상호 목사 |
| *파송찬양 Abschlusslied | 주와 같이 길 가는 것(1,3절) | 다같이 |
| *축도 Segnungsgebet | ----- | 이상호 목사 |
| *송영 Chor | ----- | 반주자 |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마침은 섬김입니다”

† 현금은 예배당 입구에 놓인 현금함에 넣어 주세요.

기도제목

1. 예배봉사자와 청년 섬김이들, 청년들의 진로(진학, 취업, 결혼)를 위해
2. 영적, 육적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일으켜 주소서
3. 황희순 집사님, 백승민 자매에게 회복의 은총이 임하도록
4. 일어나 함께 가는 교회가 되도록 – 선교, 구제, 영성훈련에 힘쓰는 교회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모스 4장은 죄 가운데 안주하며 살아가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반복적으로 깨우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침묵으로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여러 모양의 징계와 경고를 통해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비극적인 선언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암 4:6, 8, 9, 10, 11) 이를 통해

1.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치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멸망의 길로 달려갈 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근과 가뭄, 농사의 실패와 질병, 사회적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한 재난이 아니라, 영적 잠에서 깨어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깨우침이 목적임을 보여줍니다.

2.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문제는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회개가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신호를 해석하지 않았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회개란 단순한 감정의 후회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결단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마음의 전환 없이는, 어떤 종교 행위도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3. 우리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

4장 결론은 엄중합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암 4:12).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게 되는 분으로, 문제는 그 만남이 구원의 만남이 될 것인가, 심판의 만남이 될 것인가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은 소망이지만,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두려움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4장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깨우심 앞에서 여전히 잠들어 있는가, 아니면 회개로 응답하고 있는가.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이 바로 돌아설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 모임을 위한 질문

1. 나는 하나님의 경고를 깨우침으로 듣는가, 우연으로 흘려보내는가?
2.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겨야 할 영역은 무엇인가?